201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11월 20일 오전)

논 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원학과 (　　)　　수험번호 (　　)　　성명 (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답안에 문항 번호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작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흑색 펜만을 사용할 것.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When we Americans have faced down impossible odds; when we've been told we're not ready, or that we shouldn't try, or that we can't,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responded with a simple principle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a principle written into the founding documents that declared the destiny of a nation. Yes we can. It was whispered by slaves and freedom fighters as they set a path towards freedom through the darkest of nights. Yes we can. It was sung by immigrants as they struck out from distant shores and explorers who pushed westward against an unforgiving wilderness. Yes we can. Yes we can to justice and equality. Yes we can to opportunity and prosperity. Yes we can heal this nation. Yes we can repair this world. Yes we can.

— Remarks of Senator Barack Obama on New Hampshire Primary Night —

〈제시문 B〉

Man is not a free agent in any one instant of his life. He is connected to society and subjected to the rules and norms that it imposes on all its members. Man is born without his own agreement, his organization does in no way depend upon himself, his ideas come to him involuntarily, and his habits are in the power of those who cause him to contract them. Man is constantly modified by causes, whether visible or concealed, over which he has no control. He is good or bad, happy or miserable, wise or foolish, reasonable or irrational, without choosing to be in any of these states. Nevertheless, in spite of society's bond, it is pretended that he chooses how to interact with society and that he does so on his own terms, when, in reality, it is the society that determines what must happen.

– Paul Holbach, *System of Nature* –

(자료 1)

문화를 인간 행동의 통제를 위한 일단의 상징적 장치, 즉 신체 외부적인 정보의 원천으로 볼 때, 문화는 인간이 본래 무엇이 될 수 있는가와 그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무엇이 되는가 사이의 연결점을 제공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생활에 형식, 질서, 초점, 지향성을 부여하는 역사적으로 창조된 문화 패턴들에 의해서 개인이 되는 것이다. (중략)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어렴풋이나마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생애와 그것의 독특한 진행 경로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문화가 그 경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도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문화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의 종(種)으로 구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각각의 개인으로 구현시킨다.

— Clifford Geertz, *Interpretation of Culture* —

(자료 2)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젊은이들은 쉥(Sheng)으로 소통한다. 쉥은 도시화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사회방언으로 스와힐리어와 영어, 그 밖의 다른 민족어들이 섞여 있는 언어현상이다. 쉥은 젊은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회에 대한 저항과 협상을 함축한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대중매체는 케냐의 젊은이들에게 각각 다른 언어 정체성을 부여한다. 케냐인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적 유산이 담겨 있는 민족어이다. 학교는 케냐의 다문화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자리매김하도록 학생들을 부추긴다. 교회에서도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설교한다. 영어는 영화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장악한다. 이처럼 케냐의 주요 언어들은 삶의 영역에서 각각의 언어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데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에 반응한다. 쉥은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을 규정하려는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품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David Samper, "Talking Sheng" —

(자료 3)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요.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중략)

"네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라 껀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 결국 그것의 지배 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젠장, 아저씨두…… 요전 '킹구'라는 잡지에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구,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구요. 아 자꾸자꾸 계획하구 기회를 만들구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 가지구 다시 일어서지요. 칠전팔기 모르시요?"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두 인제 두구 보시우. 나는 천하 없어도 성공하구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 써요. 일해 보기두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구……."

"하늘은 꼭 올라가 보구래야만 높은 줄 아니?"

— 채만식, 「치숙(痴叔)」 —

(자료 4)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은 조직의 내부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불법, 인권침해, 불필요한 해악, 조직의 본 목적 위반, 또는 그 이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반대중 또는 정부기관에 고발하는 것이다. (중략)

일반적으로 휘슬블로잉의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어떤 경우는 매우 높고 어떤 경우는 매우 낮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발자의 의도 실현가능성은 이 양극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위(Bowie)는 "휘슬블로잉은 고발자의 최초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내부구성원의 고발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조직이 행한 비도덕적 내지는 불법적 행위가 개선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답해진다.

— William Shaw, *Business Ethics* —

*보위는 이 외에도 고발인의 동기, 조직 내 경로 활용 여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3)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입장을 각각 <제시문 A> 혹은 <제시문 B>와 연결시키고, 어느 한 인물의 입장에서 (자료 4)에 나타난 보위의 주장을 비판한 다음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